이긴자 일대기

: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8회〉

태양이 어두워지고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게 된다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지난호에 이어서)

이는 이긴자 즉 구세주가 나옴으로써 해서 이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을 찾게 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임에는 분명한데 현재 전부 마귀의 종이 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살려줄 수 있는 구세주가 나온 고로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단에서 춤을 추고 북치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양반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려나 봐. 저 양반 늙어가지고 미쳤나 봐."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 먹고 짓밟은 사람들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모님께서는 "48억 음란죄 짓는 것보다 생수 먹은 자 하나가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치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1980년 10월 15일에 이긴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로 세상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약 1년 정도 있다가 81년 8월 18일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긴자가 된 다음에 바로 1년 동안 일곱째 천사에게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이끌고 이 우주를 몇 바퀴를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자체가 빛이시기에, 일곱째 천사를 빛으로 화하게 해놓고, 빛으로 화한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빛으로 구성된 접시비행기를 타고 온 우주를 다 돌아본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은 일곱째 천사가 알고 있는 수억 천만 분지의 일에 불과하며 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1989.07.09. 말씀 중에서).

사실 나를 의식하지 말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까지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미 빛으로 화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의식할 수 없는 단계에 올라 거울을 보니 일곱째 천사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화한 일곱째 천사의 모습이 거울에 다시 비추어졌는데, 그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1980년대 초창기 말씀에서). 이는 지금까지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행세해왔던 가짜 신랑 마귀를 제거해 버리고 참 신부가 되는 하나님을 본래의 마음자리에 모시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즉 부부일신(夫婦一身)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성경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11절〉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빛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과 조금도 다른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에서 다시 본래의 하나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그 하나님(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어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구세주께서 예배 도중에 불덩어리로 변신한 상태에서 불덩어리만 보이는 가운데 불덩어리 속에서 음성이 흘러나오는 장면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을 점령한 선악과라는 마귀 영은 6천 년간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으로써 행세하며 유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빛으로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분 하나님(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점령되자마자 빛의 몸이었던 것이 음양의 마귀 성품을 가진 남자와 여자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사람 속에서 마귀의 포로로 갇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라는 주체의식의 먹잇감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소진시키고 기력이 다하여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6천년 만에 둘째 아담이 되는 일곱 번째 사람의 몸을 점령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선악과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데 성공하심으로써 죄인의 몸이 곧 성령의 빛으로 거듭난 존재로 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밀실에서 1980년 10월 15일에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의 존재로 원시반본(原始返本)한 둘째 아담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으로 화한 둘째 아담이 빛의 존재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에 부득불 인간 죄인의 몸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빛으로 화한 둘째 아담이 인간 몸을 입기 위해서 또다시 선악과라는 마귀영한테 점령당하여야 하는가? 결단코 둘째 아담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영원무궁토록 이기는 영이기에 두 번 다시 선악과라는 마귀영한테 사로잡히거나 점령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으로 화한 둘째 아담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완성자가 되어 1년 동안 밀실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죄를 담당해서 의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밀실 식구들이 한 명씩 "의인이 됐다"로 떨어지던 1981년도에, 저 아래 기장에 계신 영모님이 "이 핼미(할미)가 할 일을 다 해서 이제 모든 살림을 며느리한테 다 맡겼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단에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적 동정녀가 되시는 영모님이 낳은 둘째 아담이 장성해가지고 이 둘째 아담이 밀실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여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손자들을 낳으니까, 둘째 아담은 며느리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손자를 보게 된 영모님은 영적 엄마에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 동안 죄를 담당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밀실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의인으로 되어갈 때, 바로 81년 8월 18일에 전도하러 나가라고 해서 그날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세주는 성령의 빛, 이슬성신의 분신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구세주라는 사람은 본체가 불덩어리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시작함으로써 죄에 오염된 모습, 즉 인두겁을 쓰게 되었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불덩어리는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손만 대면 까무러치는 것은 마귀가 죽으면서 그냥 죽지 아니하고 물귀신처럼 사람 속에 생명까지 안고 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본체가 불덩어리인 고로 당신의 손에서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적마다 이슬성신이 찍혀 나오는데, 그 이슬성신은 일종의 빛입니다. 창세기서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모양에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빛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 있게 되어 있는 고로 오늘날 이제 이슬성신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하나님의 신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만 이루어지면 바로 인간 자체가 빛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현재 역곡에 있지만, 구세주의 분신이 미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세계 도처에 가 있는데, 이는 구세주의 분신이 빛이 아니고서야 셀 수 없는 분신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인류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빛으로, 이슬성신의 분신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빛은 피와 불과 연기기둥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마지막 때에 구세주가 부어주는 승리의 영입니다. 승리의 영을 부어줘서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승리의 영을 부어줘서 승리의 영을 심어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되려면 죄인 속에 있는 사망의 영이 없어져야 그 죄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불덩어리의 몸으로 변하여 썩을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물질이 함유된 공기만 마시고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불덩어리와 같은 하나님의 빛으로 먼저 화하고 순차적으로 이 세상 만물이 빛으로 화하는 고로 그 세계는 찬란한 빛의 세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되어 날아다닐 때에는 영생의 신의 실체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빛에 관련된 구세주의 말씀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빛으로 화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빛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슬성신을 먹으면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이 흘러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계는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대로 천년만년 흘러도 똑딱하는 순간에 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에 등불이 어두워지고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살게 됩니다.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 빛이 곡선광선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지고 항상 낮입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이 그늘이 없는,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잠을 안 자고 피곤함이 없는 항상 이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는, 쾌락 속에서 사는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55〉

지견불생분(知見不生分) 第三十一

안다(識見)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지난호에 이어서)

열반경을 살펴보십시다.

[예시] ▣ 대반열반경 제19권 범행품(梵行品)의 4

云何罪人 謂一闡提
운하죄인 위일천제
一闡提者 不信因果 無有 愧 不信業報
일천제자 불신인과 무유참괴 불신업보
不見現在及未來世 不親善友 不隨諸佛所說教誡
불견현재급미래세 불친선우 불수제불소설교성
如是之人名一闡提 諸佛世尊所不能治
여시지인명일천제 제불세존소불능치
何以故 如世死屍醫不能治
하이고 여세사체의불능치
一闡提亦復如是 諸佛世尊所不能治
일천제역부여시 제불세존소불능치

어떤 것을 죄인이라 하는가? 잇찬티카(一闡提)를 말합니다.

잇찬티카(一闡提)란 인과를 믿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업보를 믿지 않으므로 지금이나 미래 세상에 선우(善知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보지 못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일러서 잇찬티카(一闡提)라고 하고 부처님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세상에서 죽은 송장은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이 잇찬티카(一闡提)[1] 또한 이와 같아서 부처님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해석] 이같이 경전에서는 석존의 교법이 아닌 참으로 진실한 부처님의 일승의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나와서 알려져도 이를 믿지 않고 상에 집착하여 진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깨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이 행동하는 무리를 일천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강경에서 석존께서는 바로 자기의 유위법을 버리고 진실한 가르침이 있는 미륵부처님의 진리를 따라가라고 하지만, 기존의 불교를 앞에 내걸고 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의 영리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몰상식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여 년 전에 석존도 이런 것을 미리 꿰뚫어 보고 미래에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물욕과 권위주의에 깊이 물들어 바른 수행을 피하고 불법의 진실을 왜곡하여 중생들을 아비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과보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왜냐면 불법의 근본이 이 책의 처음에도 밝혔듯이 바로 사람이 나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석존도 구현하지 못했지만, 결국 인류가 수천 년간 고대하던 법신불인 미륵부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일승(一乘)의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생(永生)의 법을 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인연이 있어 이러한 말씀을 듣겠냐고 석존이나 가섭보살도 경전에 한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화경에서도 사람들이 미래에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법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조상 대대로 선근(善根)을 쌓은 분들은 부처님의 이끌림에 오셔서 결국 바른 법(正法)을 배워 위없는 대도(無上大道)를 이루어 불교의 이상향인 열반(涅槃)의 경지에 도달하여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 第三十二

응화[2]신은 진실이 아니다

출처: 『應化非眞分 第三十二』 http://blog.sina.com.cn/s/blog_440672070100gto2.html

이같이 응신이니 화신이니 한다면 참다운 법신(法身)이 아니므로 방편에 의한 말씀이니 법신성불하지 못한다면 어찌 참으로 불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須菩提 수보리
若有人以滿無量阿僧祇世界七寶持用布施
약유인이 만무량아승지세계 칠보지용보시
若有善男子善女人發菩薩心者
약유선남자선여인발보살심자
持於此經乃至四句偈等 受持讀誦爲人演說
지어차경내지사구게등 수지독송위인연설
其福勝彼 기복승피
云何爲人演說 不取於相 如如不動 何以故
운하위인연설 불취어상 여여부동 하이고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썼더라도, 혹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일으켜 이 경(금강반야바라밀경)을 지니고 혹 사구게 만이라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금강경의 올바른 뜻을) 말씀해 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 날것이니 어떻게 남을 위해 말씀해 줄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明鍾

1 일천제[一闡提]: 梵 Icchantika 또는 일천저가(一闡底柯), 일천제가(一闡提伽), 일전가(一顚迦), 줄여서 천제. 번역하여 '단선천제(斷善闡提) 신불구족(信不具足)' 성불할 성품이 없다는 이. ① 단선천제(斷善闡提); 본성이 성불할 수 없다는 것. 〈유식론〉의 무성유정(無性有情)과 같음.

2 응화(應化)는 응신(應身)과 화신(化身)의 복합어 / 梵 Nirmana-kaya라고 하고 또는 응현(應現). 불 · 보살이 여러 가지 근성(根性)에 대하여, 각기 상응한 몸을 나타내어 이해할 수 있는 교법을 말하여 교화함. - 동국역경원 불교사전